



김기빈 | 한국토지공사 지명연구위원 /
중앙지명위원회 위원(dkang44b@hanmail.net)

삼국유사의 현장 위천(渭川), 그리고 군위 인각사(麟角寺)와 일연(一然)스님

강태공이 뜻을 얻고자 낚시하던 위수(渭水)와 위천(渭川)

낚시질 하는 사람을 가리켜 '강태공(姜太公)'이라 부른다. 왜 그럴까? 중국의 고대 역사에서 주(周)나라 창업의 일등 공신인 태공망(太公望) 여상(呂尚)이 바로 강태공인데, 그의 본명이 강상(姜尚)이요, 주문왕이 그를 태공망으로 높여 불렀기에 합하여 '강태공'이라 한 것이다.

그런데 그와 낚시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어느 날 주문왕(서백)이 사냥을 나갔다가 강가에서 낚시질 하는 노인을 발견하고 물었다. "낚시질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얻기 위함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때 노인과 세상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의 인품에 반한 주문왕은 그를 수레에 태우고 주나라로 돌아와 스승으로 예우하였는데, 주나라에 온 태공망이 나라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기에 뒷날 그를 제나라 땅의 제후에 봉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강태공의 낚시는 '큰 포부를 이루기 위하여 때를 기다리는 현인'을 뜻한다. 그는 병법서인 육도(六韜)를 편찬하여 병략의 시조로 꼽히고 있으며, 낚시할 때 곱은 낚시(구부

러진 것이 아닌)를 썼다든지, 수많은 고사 일화를 남긴 인물 이기에 오늘날도 연구에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그가 때를 기다리며 세월을 낚았거나, 혹은 장부의 웅지를 꺾기 위하여 뜻을 낚았던 위수(渭水)는 황하의 물줄기 중에서 가장 큰 지류로서 섬서성에 있는데, 이 강변에 옛 도읍지인 장안(長安-서안)이 있으니 그 지정학적 위치를 가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태공망 여상이 낚시질하던 강 - 위수는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도 흐르고 있다. 바로 위천(渭川)이 위수라는 강 이름에서 '위(渭)'자를 빌려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고을이나 산 이름, 강 이름은 중국의 지명을 의방(依倣)한 예가 많으며, 이것을 꼭 사대적(事大的) 의미로만 풀이할 것이 아니다. 위천의 경우에도 옛 선비들이 태공망 여상의 뜻을 기리며 천하를 경영해 보고자 하는 장부의 원대한 꿈, 때를 기다리는 선비의 원려(遠慮)가 강 이름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위천(渭川)'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천이 여럿이다.

경상북도 군위의 위천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거창군의 위천, 경상남도 함양군의 위천이 있고, 이외에도 옛 이름으로 위수 또는 위천으로 불렸던 하천이 여럿이다. 그래서 법정하



천 명칭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거창위천, 함양위천, 위천(군 위군)으로 구분하여 그 명칭을 고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단군 개국의 대서사시가 기록된 위천 강변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낙전리 매봉산 기슭에서 발원하여 여러 물을 모아 북서류하다가 상주시 중동면에서 낙동강 본류에 합류하는 지방하천이다. 이 강변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에 유명한 인각사(麟角寺)가 있다. 이곳 인각사는 바로 <삼국유사>가 씌어진 역사의 현장.

머리말로써 적는다.

대체로 옛날 성인(聖人)은 예악(禮樂)으로써 나라를 세웠고, ‘인(仁)과 ‘의(義)를 가지고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런데 괴력난신(怪力亂神)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왕이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부명(符命)을 얻고, 도록(圖籙)을 받게 된다. 때문에 보통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게 마련이다. (중략) 그런 까닭에 하수(河水)에서 그림이 나왔고 낙수(洛水)에서 글이 나와서 이로써 성인이 일어났던 것이다. 무지개가 신모(神母)의 몸을 두르더니 복희를 낳았

고 용이 여등(女登)에게 교접하더니 염제를 낳았다. (후략)

역사를 배운 사람치고 고려 충렬왕(1281년) 때 승려 일연(一然)이 쓴 <삼국유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그 책의 첫머리를 시작하는 글이다. 여기서 「괴력난신」이란 어떤 초자연적인 것으로서 공자가 <논어> 술이편에서 「괴력난신은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명」이란 하늘이 임금이 될 사람에게 내리는 명령으로서 어떤 징조나 신물을 말하며, 「도록」은 미래를 기록한 예언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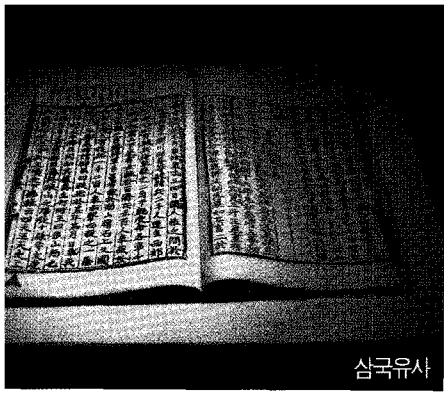
<삼국유사>가 기록하고 있는 단군역사.

우리가 지도책에서 찾을 수 없는 아사달과 박달나무 밑의 신시(神市) 아침. 그리고 곰과 호랑이, 쑥과 마늘과 어둠의 동굴, 단군의 탄생과 곰의 외손자가 된 우리 민족.

이것이 <삼국유사>가 기록하고 있는 우리 역사의 시작이다.」

이 책은 완고한 유교근본주의자들에 의하여 “그기재한 것

1) <삼국유사>가 나온지 10년 후 이승휴의 <제왕운기> 등에서 단군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조선 후기 <동몽선습>과 같은 아이들 교재에 사용되었으나 일제 이후 단군 역사는 ‘옛날 옛적 이야기’로 치부되고, 실제로 해석됨으로써 우리 역사의 뿌리가 큰 손상을 입게 되었다.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 허황됨이 많아서 족히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사가들로부터 배척당하였다. 그러나 단군 개국의 「대서사시」를 수록한 주체적 의식의 《삼국유사》가 없었다면 우리 역사의 시작을 어떻게 기록할 것이며, 향가를 통한 고대문화 연구는 어찌할 것이며, 수많은 설화와 이두와 전적과 역사고고학적, 불교미술사적 자료는 어디서 얻었을 것인가.

그래서 소위 「정사(正史)」를 대변하는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생각해 본다.

과연 《삼국유사》보다도 140년 앞서나온 이 역사서는 《춘추》 필법에 따라서 역사를 편견 없이 기록한, 괴력난신을 이야기 하지 않은 참 역사서인가...

- 8월에 여자 시체가 떠올랐는데 길이가 18척이었다. (의자왕)
- 3월에 황새가 월성 모퉁이에 깃들었다 (흠해 이사금)
- 2월에 흰 개가 대궐 담 위로 올라왔다 (진평왕)

《삼국사기》의 이런 기록들을 보면 길이 18척(4m 이상)의 여자 시체는 무엇이며, 대궐 담 위에 올라간 개 한 마리나 월

성 모퉁이에 깃든 황새가 무슨 까닭으로 5백년이 지난 후 김부식의 역사에 기록된 것인지 우리는 지금 해독할 수 없다.

또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와 주몽의 탄생 등 《삼국사기》에도 「괴력난신」과 같은 종류의 기록은 많다. 결국 두 역사가 그 서술 동기나 기록체제, 저자의 역사인식 등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 위주의 편향된 역사관으로 《삼국유사》를 평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발상인 것이다.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 쓰고 찍어낸 역사의 현장 인각사

역사와 신화는 감춘 언어와 감추지 않은 언어가 함께 표리를 이루며 시제(時制)없이 흐르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원초적 의식의 아메바이며, 잠재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우리가 어머니의 태안에 있던 때를 기억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해두자. 그러기에 황당무계하고 괴기하거나 비합리적인 이야기 속에 우리가 해독할 수 없거나 판독하지 못하는 「망각의 언어」가 녹아 흐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역사·문화유산의 총체적·원천적 보고(寶庫)인 《삼

국유사)에 대하여 저자인 일연스님은 알아도, 일연이 말년을 보내면서 이 책을 쓴 곳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화전동의 위천 강변에 위치한 인각사가 바로 그곳이다.

더구나 2009년 2월 초 인각사에서 8~9세기 불교 공양구 19점이 대거 발굴됨으로써 이 사찰이 일연스님이 머물기 이전인 통일신라시대부터 국찰(國刹)의 큰 사찰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²⁾

보각국사 일연.

보통 <삼국유사>의 저자로만 기억되고 있으나 고려 중기의 선승으로서 보조국사 지눌과 진각국사의 뒤를 이어 고려의 선종을 크게 발전시킨 고승으로서 그가 편찬한 저술도 1백 권이 넘으나 정작 불서는 전해지지 않고 <삼국유사>만 남아서, 이 땅의 사대주의적 역사서가 남긴 폐해를 바로잡아 주고 있는 것이다.

1206년 장산군(경산시)에서 태어나 9세에 출가하고, 78세에 고려 최고의 국존이 되었으며, 인각사에 들어온 후 1289년 향년 84세로 입적하였다.

「인각사(麟角寺)의 '인각'은 '암키린의 뿔'이란 뜻이다.

속전에는 절 입구의 깎아지른 듯한 바위에 기린이 나타나 뿔을 이 바위에 얹었으므로 '인각사'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지지만, 그보다는 '인각(印刻)'으로 기억되어야 할 곳이 바로 이 곳이다. 왜, <삼국유사>를 쓰고 찍어낸 곳이므로...

이곳에 있는 보각국존비는 그가 입적한 5년 후인 1295년에 세운 것이다.

본래 왕희지의 글자를 모아 새겼다고 하는데 지금은 글자가 모두 마멸되어 그 원형을 알아 볼 수가 없을 정도이다. 옛날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갈 때 이 비석의 글자를 떼내어 갈아 마시면 과거에 급제한다는 속설이 있었으니 비문이 남아 볼 수가 없었다.

몽고의 침입이 계속되자 대장경주조에 참여하였고, 물 흐르는 듯한 강론과 설법으로 선풍(禪風)과 명성이 전국에 드날렸으나

오늘 곧 삼계(三界)가 꿈과 같음을 알았고,

대지가 작은 털끝만큼의 거리낌도 없음을 보았다.

는 그의 깨달음으로 보면 명리란 한 차례의 소나기만도 못한 것.

즐겁던 한 시절 자취 없이 가버리고

시름에 묻힌 몸이 덧없이 늙었어라.

한 끼 밥 짓는 동안 더 기다려 무엇 하리.

인간사 꿈결인 줄 내 인제 알았노라.

이것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관음, 정취보살과 조신」 조에 그가 붙여 쓴 시로서 인각사 입구의 <일연사비>에 새겨진 글이다.

법명인 「일연(一然)」을 생각해 본다.

일래일왕(一來一往)하는 생명으로, 일연(一然), 한번 그렇게 되었으니(태어났으니) 그자체가 일몽(一夢), 한바탕의 꿈이란 뜻이었을까.

위천(渭川)이라는 강 이름이 범상한 이름이 아니듯이, 이 강변 인각사에서 <삼국유사>를 쓴 일연이라는 이름도 참으로 우리 인생살이에 심오한 깨달음을 담고 있으니, 강 이름, 절 이름, 사람 이름이 모두가 새겨두어야 할 이름이다. ●

2) 조선일보 2009년 2월 10일자, 21면 보도 '인각사 통일신라 유물 19점, 고승 추도 의식 위해 들은 듯 기사 참조'